

국회 정상화... 오늘 5·18 특별법 처리 '주목'

의장-원내대표 회동서 합의 법사위·본회의 잇따라 민생·공직선거법 우선처리

파행을 거듭했던 2월 임시국회가 20일 부터 정상화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정례회동을 하고 2월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지난 6일 국회 법사위에서 한국당 소속 권성동 위원장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진 끝에 법사위가 파행하기 시작한 지 14일 만이다.

이에 따라 20일 법사위와 본회의가 잇따라 열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28일 예정된 본회의도 정상적으로 열릴 전망이다. 특히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합의는 민주당 측에서 국회 파행에 대해 국민에게 유감을 표시하고, 한국당도 정상화에 협력하겠다고 밝히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 거취 문제로 우리당 법사위원들의 퇴장이 있었고, 법사위가 파행하며 법안심사가 중단됐다"며 "민생 개혁 법안의 심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에 대해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법사위가 정상 가동되도록 하겠다. 우 원내대표가 국민에게 송구스런 마음을 표했기



“국회, 일 좀 합시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하기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며 "이 시간 이후 국회 정상화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회동 직후에는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과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변인이 정상화 합의를 이뤘다고 재차 확인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일 오전 중 법사위를 열어 밀린 민생법안을 협력해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원내대변인은 "정 의장이 '지방선거 출마자 등을 고려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전했다.

권 위원장의 사퇴 문제에 대해서는 더는 거론하지 않기로 했다고 양측은 설명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민생법안, 국민생명안전 법안, 공직선거법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며 "권 위원장 문제의 경우 검찰이 독립적인 수사단을 구성해 수사에 임하는 것으로 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처럼 권 위원장이 수사에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무한정 미룰 수는 없고, 빈손 국회를 만들 수도 없다"며 "한국당도 정상화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정상화와 수사는 별개"라는 입장을 별도로 밝히며 '권

위원장의 의혹'에 대한 공세를 계속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국회 정상화가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는 특정 정치인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분위기로 흘러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은 민생 현안을 뒤로한 채 공전을 지속했던 국회만큼이나 채용비리도 젊은이들의 꿈을 짓밟았던 사건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면서 "산업동상 자원부가 광해관리공단 특혜 채용과 관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는 기사가 나왔고, 안미현 검사의 외압 주장도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좁혀지지않는 개헌 평행선

민주 "개헌·지방선거 동시투표" ...한국당 "관계 개헌"

설 연휴 직후인 19일 여야는 개헌 문제를 놓고 또다시 격돌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개헌안 마련의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에 여전히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재차 압박했다. 하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여권이 추진하는 개헌 구상을 '관계 개헌'이라고 규정하며 대어 공세를 재개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 측이 지난 대선 때 했던 지방선거 동시 개헌 약속을 반복한 것에 대해서는 명백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어 비판적 분위기는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논의를 위한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한국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지난 1월부터 그동안 헌정특위(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는 1차 활동시한 안에 결과물을 못 내놨다"며 "개헌 열차"를 한국당의 제동 전략으로 멈출 수는 없다. 진정한 개헌을 바란다면 5당 원내대표 회동에 응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관계개헌은 개헌을 하지 말자는 그런 술책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제대로 된 국민개헌을 하고자 하는 집권여당이라면 2월 국회를 이렇게 파행시켜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다.

정태욱 대변인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정권 심판론"이라면서 "그것을 정부가 무마하기 위해 개헌 국민투표를... (듣고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전남 광역의원 정수 유지 가닥

정계특위 회의 증원 규모 이견... 오늘 28일 중 처리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문제가 이르면 20일, 늦어도 오는 28일에는 처리될 전망이다. 광주·전남지역의 광역의원 정수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법정 시한을 2개월이나 넘어 예비 후보 등록 직전에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문제를 처리하는 것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국회 헌법 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6·13 지방선거에 적용될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문제 등의 합의에 나섰다. 하지만 여야는 광역의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증원 규모 등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하면서 합의 여부는 미지수다.

헌정특위의 바른미래당 간사 김관영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헌정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민주당과 한국당 두 당이 사실은 각자의 주장만을 거듭하면서 교착상태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며 "좀 더 통 큰 마음을 갖고 결단을 통해 이 부분이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국당 간사 주광덕 의원은 "내일이라도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으며 민

주당 간사 윤관석 의원은 "3월2일이 광역의원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짧은 시간에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헌정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6·13 지방선거가 있기 6개월 전인 지난해 12월13일까지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2개월여 동안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여야 3당 간사가 이날 추가 합의에 돌입한 가운데 합의가 이뤄질 경우,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관련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2월 마지막 본회의인 28일 처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의 광역의원 정수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헌정특위 관계자는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당초 행안부 안에서는 광주와 전남지역 광역의원의 정수를 감소하는 방안이 제시됐었다"며 "하지만 여야 간의 조정을 통해 일단 광주·전남의 광역의원 정수는 기존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여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광주·전남지역 광역의원 정수 확정도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

"이용섭 '대통령이 격려' 발언 문제거나 허위사실"

윤시장 등 입후보자 5명 성명... "명부 유출 의혹 해명 필요"

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윤장현 광주시장 등 후보 5명이 최근 출마를 선언한 이용섭 전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난하고 나섰다.

특히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부위원장은 '대통령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의혹'마저 불거지면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최영호 광주 남구청장은 19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부위원장은 공명선거를 위한 6·13 지방선거 직폐

1호"라면서 "이 전 부위원장이 국민보다 자신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위원회를 그만 두고 또 다시 시장 출마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윤장현 시장, 강기정 전 국회의원, 민형배 광산구청장, 양항자 민주당 최고위원, 최영호 구청장 등 민주당 광주시장 출마예정자 5명은 전날인 1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서를 논의했고 최 구청장이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를 발표했다.

이들은 선거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기 때문에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 대한 이 전 부

위원장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 전 부위원장 측은 당의 진상조사와 경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실무자가 정치활동을 하면서 구속한 전화번호를 이용해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 활동성과를 알려드린 것뿐'이라고 변명과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에 따르면 이 전 부위원장은 당원 명부를 유출, 지난해 연말과 올 초순께 신규 당원 등 다수의 당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경찰과 당 차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광주시장 입후보자 5인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이 전 부위원장이 시장 진상조사와 경찰 수사에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으면서 변명과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100m 달리기 경기에서 이미 50~60m를 앞서 달리는 후보와 경쟁하는 것이어서 공정성이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이 전 부위원장이 지난 13일 광주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 전 부위원장은 출마선언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출마를 격려했고 용기를 북돋아줬다"고 밝혔다.

최 구청장은 "대통령께서 그런 발언을 실제 하셨어도 문제고, 만약 하지 않았다면 명백한 허위사실이다"고 주장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12
	국제한국어교원학과	0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5
사범	유아교육과	1
예능	음악학과	2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플레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실용음악학과	8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모질,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어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 추가모집 : 원서접수 : 2018. 2. 22(목) ~ 23(금)
 : 전 형 일 : 2018. 2. 24(토)

대 학 원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8. 2. 19(월) ~ 22(목)
 ② 전 형 일 :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학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00	2018. 2. 24(토) 오전 10시
		신학과(Ph.D.)	0	
일반대학원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0	
		통합예술치료학과(D.C.S.)	0	
		신학과(Th.M.)	0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유아교육학과(M.Ed.)	0	
		상담심리치료학과(M.A.)	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0	
		사회복지학과(M.S.W.)	0	
국제대학원	석사	평생교육학과(M.Ed.)	00	
		한국어교육학과(M.Ed.)	0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0	
		실용음악학과(M.A.)	0	

▶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0명(주·야)	3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0명(주·야)	60학점 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2. 19(월) ~ 22(목)
 *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8. 2. 24(토) 오전 10시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중안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 학부 0621605-1114 / 대학원 605-1115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혁신로 36